

실용서의 상승곡선 뚜렷하다

미리 살펴보는 95년 하반기 출판 경향

국내 35개 단행본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95년 하반기 출간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하반기 출판사들은 문학물보다는 실용서 등 비문예물을, 국내 저작물보다는 번역서를 다수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새로운 독자층으로 급부상한 직장인과 가정주부들을 겨냥한 실용서의 출간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학술분야에서는 '총서' '신서' 등의 시리즈를 발간이, 아동물에서는 교양과학서의 출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서적들의 장르 다양화와 전반적인 소량 다품종 체제로의 변화 움직임도 하반기 출판계의 커다란 특징이다.

유례없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단행본 출판사들은 문학물보다는 학술·실용서 등 비문예물을, 국내 저작물보다는 외국저작물을 많이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지난 8월 중 문학, 예술, 철학, 과학 등 분야별 국내 35개 단행본출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드러났다. 또한 30대 직장인 독자와 주부들을 겨냥한 경제, 건강, 자녀교육 분야의 실용서 발간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총서' '신서' 등의 시리즈물 발간과 《'임격정' 우리말 용례 사전》(집문당), 《A부터 Z까지 철학의 실제》(동녘), 《고사성어 대백과》《관혼상제 대백과》(이상 동방인) 등 독특한 종류 분야의 책도 다수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학류는 계속 하강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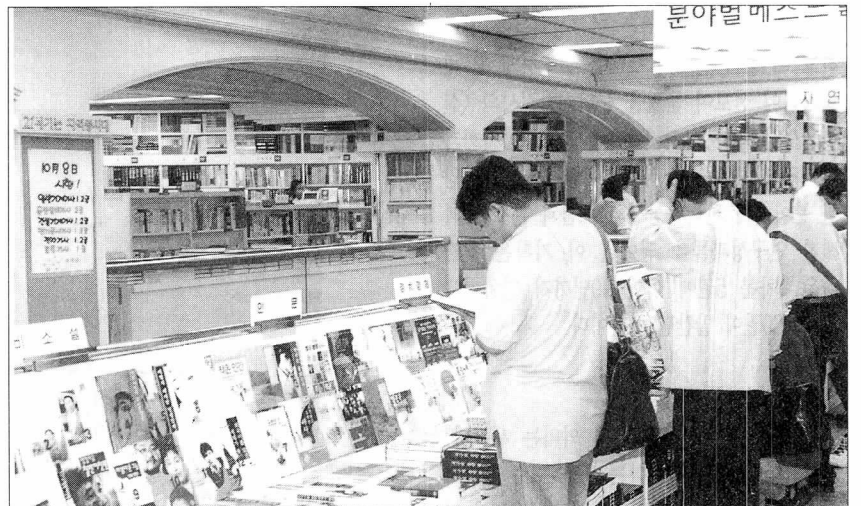
95년 상반기 문학류 발간 종수는 94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소설류의 판매저조'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 줄어든 2,000종 정도에 불과했다(출판자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올 하반기 역시 문학류 출판이 계속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문학과학지성사, 민음사, 세계사, 창작과비평사, 문학동네, 살림, 숲 등 문학물을 주로 출간해온 주요 문학출판사들의 경우 예년과 비슷한 양의 문학물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문예물과 비문예물을 함께 출간해온 대다수 출판사들의 경우 올 하반기에는 문예물보다는 실용서 등 비문예물에 주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현상은 94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실용서의 호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95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문예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대응력이 강한 실용서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출판사들의 기획이 실용서쪽으로 옮겨가는 독자들의 경향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발간부수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문학류 시장의 또다른 특징은 소설에서 국내 작가들보다는 외국 작가들의 작품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출판사들이 섭외가 힘들고 신선향이 떨어지는 국내 유명작가들보다는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외국작가들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하반기 출판계는 문예물에 비해 실용서들의 급부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코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출간예정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레오폴트 마조흐의 《모피를 입은 비너스》(과학과사상), 장 지오노의 《지붕위의 기병》(문예출판사), 존 파울즈의 《마법사》(문학동네), 미셸 트루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민음사), 르네 벨레토의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지옥(열린책들), 알랭 드 보통의 《에세이즈 인 러브》(로맨틱 무브먼트)(한뫼) 등이 있다.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출판사들도 중견이나 원로급보다 신선한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녕의 《남쪽계단을 보라》(세계사), 배수아의 《램소디인 블루》, 구효서의 《라디오 라디오》 김지수의 《목포아리랑》(이상 고려원), 박시원의 《구도》(문학동네), 이인화의 《인간의 길》, 신이현의 《지킬과 하이드게임》(이상 살림) 등 하반기에 출간될 신진작가들의 작품은 서점가 문학류 매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추리, SF 등 제철이 지난 상업소설들은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며, 유전공학, 우주공학, 사이버 펑크 등 첨단 과학분야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다는 점도 하반기 문학물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30대 직장인 등 급부상한 독자층 겨냥

출판사들이 기획 및 제작중인 실용서들 중에는 특히 《약은 어디에 쓰이지》(다섯수레), 《항생물질 이야기》(전파과학사) 등 건강 관련서와 《여성이어 테러리스트가 돼라》(푸른숲), 《수험생 어머니의 행복찾기》(세길), 《부부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다섯수레), 《성공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7가지》(삶과 꿈) 등

책의 구매계층으로 새롭게 등장한 가정주부와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95년 상반기 《미소 한잔 눈물 두 스푼》《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다》《밤새 훌쩍 크는 아이들》《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전원주택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 등의 실용서를 히트시킨 장본인들이다.

문화생활 지침서, 자동차문화 관련서, 재테크 안내서, 부모교양서, 자녀교육 지침서, 신종사업 안내서 등 새롭게 급부상한 이들 독자층의 욕구에 걸맞는 책을 기획하는 것이 95년 하반기 비소설류를 출간하는 출판사들의 공통된 경향이다.

'총서' '신서'의 대형기획물도

올 하반기 아동, 학술분야는 '총서' '신서' 등의 이름을 내건 시리즈물이 계속해서 꾸준히 출간되거나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음사가 레몬 엘트먼의 《性, 꿈, 정신분석》을 제1권으로 <정신분석학 총서>를, 살림이 《상상력이란 무엇인가》를 필두로 <상상총서>를 내기 시작하며, 문학동네는 에스터 하딩의 《사랑의 이해》를 시작으로 <신화상징총서>를 출간한다. 이밖에도 서광사는 《계몽철학입문》을 비롯한 <서광 철학강의 시리즈>를, 창작과비평사는 《변화의 변증법》을 비롯한 <창비신서>를, 문예출판사는 《조선시대 회화사론》 등 <한국미술총서> 시리즈를 계속 출간할 예정으로 있다.

학술분야에서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는 역사가 많이 눈에 띄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장보고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

'95 하반기 출간예정 도서

* 각사 대표기획 발췌(가나다 순)

식을 질타하는 《해상 민족의 역사추적》(동반인), 역사를 드라마적인 시각으로 고찰한 《이야기 한국사》(동녘),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역사인식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병합》(새길), 자연과 인간의 역사적 관계를 서술한 《이야기 물리학사》(전파과학사) 등이 올 하반기에 출간될 대표적인 역사물들이다.

아동물로는 다섯수레가 아동과학서인 〈왜 그럴까요〉〈세상을 배우는 작은 책〉 등의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으며, 세계전은 〈릴레이 과학동화〉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예술분야의 출판은 종수에 있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영화, 미술 위주에서 건축, 고전음악, 인형극 등으로 장르가 다양화하는 뚜렷한 징후를 보인다.

그 가운데 역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르는 영화로서 열린책들의 《영화, 형식과 기호》《한국 영화사》, 열화당의 《한국영화의 모험가들》《자료로본 한국 영화사》 등을 비롯, 많은 영화관련서가 쏟아질 것으로 짐작된다.

예술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건축기행》(창작과비평), 《미술과 도시》(분리구(文樂)) (열화당), 《클래식의 쾌락》(열린책들) 등 장르가 점점 다양화·전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량 다품종으로의 변화 뚜렷

이번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국내 출판계의 출판풍토가 변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오랫동안 일반 단행본 출판의 수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문학류가 주 독자층을 겨냥해 기획, 출간되는 실용서에 밀려 위축되고 있다는 점과, 베스트셀러를 지향해왔던 출판계가 장르를 다양화하면서 소량 다품종 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출판관계자들은 대부분 이같은 출판풍토 변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불황타령만 하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독자를 찾아 나서 독자의 요구에 맞는 책을 기획 출판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느냐”는 의견과 “세상이 변하는데 책문화가 변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증론이다.

결과적으로 95년 하반기는 우리나라 출판사들에게 불황을 딛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전진하는 중요한 과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연 기자

| 출판사 | 도서명 | 저자 및 역자 | 분야 | 출판사 | 도서명 | 저자 및 역자 | 분야 |
|--------|----------------------|------------------|-----|--------|----------------------|-----------------|-----|
| 고려원 | 랩소디 인 블루 | 배수아 | 소설 | 서광사 | 우산속의 귀뚜라미 | P. 아클리/노재운 | 아동 |
| " | 라디오 라디오 | 구호서 | " | 세계사 | 남쪽계단을 보라 | 윤대녕 | 소설 |
| " | 문학상징사전 | 이승훈 | 학술 | " | 시인의 샘 | 고형진 | 학술 |
| 과학과 사상 | 푸고 안에 들어가기 | 개리 거팅/홍은영 외 | " | 열린책들 | 러시아 고대문학 | 조주관 | " |
| " | 부르디외와의 인터뷰 | 브리디외/양운덕 옮김 | " | " | 슬라브 학회지 | 계동준 외 7인 | " |
| 김영사 | 잃어버린 세계 | 마이클 클라이트/정영옥 | 소설 | " | 과테문학의 여성미 | 안진태 외 | " |
| " | 우주의 생명 | 마빈 인스키 외/장희익 외 | 학술 | " |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 르네벨레토/이세욱 | 소설 |
| 다섯수레 |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 | 윤구병 | 아동 | " | 영화, 형식과 기호 | 로트만 외/황종우 | 예술 |
| " | 악은 어디에 쓰이지 | 장 베르나르 | " | 열화당 | 미술과 도시 | 최태만 | " |
| " | 이야기 한국사 | 박한용 외 | 비소설 | " | 한국영화의 모험가들 | 곽대원 외 | 예술 |
| " | 현대철학사상의 흐름 | 박정호 외 | 학술 | " | 김환기 | 오광수 | " |
| 동반인 | 관혼상제 대백과 | 유덕선 엮음 | 실용 | " | 자료로 본 한국 영화사 | 정종화 | " |
| " | 해상민족의 역사추적 | 김성호 | 학술 | " | 몽크 | 장소현 | " |
| 문예출판사 | 현대성 비판 | 알랭 투렌/정수복 외 | " | 예음 | 해커 | 에이비드 비스코프 | 소설 |
| " | 계몽의 비판 | 아도르스, 호르크하이머/김유동 | " | 을유문화사 | 세계외교 정책론 | 김계동 외 | 학술 |
| " | 유럽을 생각한다 | 에드가 모랭/임문영 | " | " | 중국인의 가치관 | 센고쿠 다모스 외/황종권 | " |
| " | 지옥 | 앙리 바르부스/오현우 | 소설 | 전파과학사 | 과학사 총설 | 오진근 | " |
| 문학과지성 |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 강정인 번역 | 학술 | " | 인간에게 있어 삼림이란 무엇인가 | 스기와리사토시/정호호 외 | " |
| " | 세상의 나무들 | 정현중 | 시 | " | 수확 아이디어 퍼즐 | 후지무라 고자부로 외/임승원 | 실용 |
| " | 마르크스주의와 해체론 | 마이클라이언/윤효녕 | 학술 | " | 제로에서 무한으로 | 콘스탄스 레이드/임승원 | 학술 |
| " | 한국 사회사의 이해 | 한국사회학회 엮음 | " | " | 노이즈의 세계 | 무샤 도시미즈/김수용 | " |
| " | 쓸모없는 지식을 찾아서 | 복거모 | 비소설 | " | 심장병을 예방하자 | 이와네 히사오/김현수 | 실용 |
| 문학동네 | 사람의 이해 | 에스테 하딩/김정란 | 학술 | 정신세계사 | 타넷 시자(死者)의 서(書) | 파드마바비/류시화 | 비소설 |
| " | 인간과 성(聖) | 로제 까미유/권은미 | " | " | 윤희란 무엇인가 | 지나서미나라 | " |
| 문학세계 | 한국문단사 | 정규용 | 비소설 | 집문당 | 한국의 미술문화 | 안휘준 | 학술 |
| " | 한국의 성풍속 | 최래옥 | 학술 | " | 고려시대 한문학 연구 | 고경식 | " |
| " | 정치용 평전 | 이승원 | 비소설 | " | 임궏정 우리말 용례사전 | 민충환 | " |
| 민음사 | 방드르니, 태평양의 끝 | 미셸 투르니에/김화영 | 소설 | " | 마르크스를 넘어서 민주복지주의로 가는 | 윤원규 | " |
| " | 놀라운 뇌의 세계 | 로버트 오르스타인/서유현 | 학술 | 창작과 비평 | 변화의 변증법 | 보리스 가갈리쯔끼/송충기 | " |
| 보리 | 그때 그학교 | 현병호 | 비소설 | " | 매슈 아놀드 연구 | 이주형 | " |
| " | 골라잇에서 바라본 세상 | 이재관 | " | " |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 노마 필드/박이엽 | 비소설 |
| 범양사 | 자연의 신비와 과학의 도전 | R. 매투/구현모 | 학술 | " | 초록은 지쳐 단풍드는데 | 이대환 | 소설 |
| " | 시스템학 | 박창근 | " | " | 채플린 전기 | 안정숙 | 비소설 |
| " | 과학과 종교의 만남 | F. 카프라/김기협 | " | " | 터임캡슐 속의 필름 | 남호섭 | 아동 |
| 세계절 | 놀면서 배우는 수학책 놀이 | 아드리네 케츠 | 아동 | " | 김석철 세계건축기행 | 김석철 | 비소설 |
| " | 그림으로 풀어보는 우리역사 퀴즈 탐험 | 김수영 | " | 친구 | 침대에서 만난 화성인과 금성인 | 존 그레이/김경숙 | " |
| 살림 | 인간의 길 | 이인화 | 소설 | " | 1997, 홍콩 | 잭 히킨스/김은정 | 소설 |
| " | 지킬과 하이드게임 | 신이현 | " | " | 기만 | 마이클 워버/권국성 | " |
| " |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 사르트르 외/진형준 외 | 학술 | 푸른숲 | 여성이어 테라리스트가 돼라 | 전여옥 | 비소설 |
| 살과 꿈 | 성공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7가지 | 디팩 초프라/임희근 | 실용 | " | 20세기를 만든 사람들 | 김정환 | " |
| " | W 이론을 만들자(2) | 이면우 | " | " | 목욕하는 여자들 | 송우혜 | 소설 |
| 삼문 | TV 퍼플 | 무라카미 하루키/양억관 | 소설 | 한뜻 | 놀라운 기설 | 프란시스 크릭/과학세대 | 학술 |
| " | 문학상 수상 작품집 | 오정희, 윤후명 외 | " | " | 멀티미디어에 대한 57가지 질문 | 일본경제신문/윤정란 | 실용 |
| 새길 | 예술, 혹은 아름다운 음모 | 이윤영 | 비소설 | " | 마르크스 유령 | 지크메리다/양운덕 | 학술 |
| " | 구조와 힘 | 아시다 아카리/이정우 | 학술 | " | 환상의 역사 | 프랑수아 푸레 | 비소설 |
| 서광사 |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 토마스 이쿠나스/정달용 외 | " | " | 에세이즈 인 러브 | 알랭 드 보통/이명호 | 소설 |
| " | 세계상의 시대 | M. 하이데거/최상욱 | " | " | 천년의 세월을 엮는 사람들 | 이은수 | 비소설 |
| " | 해석학 | E. 후프니겔/강학순 | " | 현암사 | 사시트렌드 | 박광희 | 실용 |
| " | 환상의 나라에서 | | 아동 | " | 정보과학사전 | 이와나미/탁연상 | " |